도내최초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조례제정

전주시의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원안 가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안전한 전북 치안환경 조성 하자 위한 2017년 치안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을 방문해 황현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안전한 전라북도 치안환경 조성을 /안재용 기자 · 김민근 기자

최근 콜센터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주지역에서 이들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영규 · 이기동 · 박형배 · 김진옥 · 서난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전주지역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북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해 전주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백영규 의원 등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건전한 근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시민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할 경우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토록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용자로 하여금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협력관계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보다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인권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혁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속도'

불편 사항 조치 결과 공유 · 개선 사항 등 의견 수렴

전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담 대책반을 가동키로 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민 삶 속으로 들어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3일 혁신도시 문화공간(오공로 43-24 하나빌딩 4층)에서 혁신도시 내 통장과 입주자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등 분야별 대표 25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시장은 이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회의실에서 12개 공공기관 노조대표 등 직원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혁신도시 현장점검과 '혁신도시 시민불편 해소 TF단' 구성 등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인 김 시장이 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직원을 직접 만나 불편사항 등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대표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요구사항 등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 및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향후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팀장급 39명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시민불편 해소 TF단'을 통해 혁신도시 내 불편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시민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통, 복지, 환경분야 등 전반적인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혁신동민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행정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최근 조성된 혁신도시 내 문화공간에서는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가와 중국어교실, 아동미술 등 10개 프로그램과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익산 공사장 인근 후진하는 포크레인에 깔린 60대 사망

13일 공사현장 인근에서 후진하던 포크레인에 깔려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53분께 전북 익산시 용동면의 한 하수관 공사장 인근에서 이모씨(60,여)가 후진하는 포크레인에 깔려 병원에 이송됐다.

이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포크레인 운전자 김모씨(47,남)는 후진하는 도중 미쳐 이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 모 산부인과서 로타바이러스 검출

10일 신생아실 폐쇄… 전체 소독 · 시설정비

군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로타 바이러스 양성 진단이 나와 신생아실이 폐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일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심 신고를 한 부모는 A병원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계속 설사를 했으며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 후 "아이가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A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집단 감염 의심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

보건소는 역학조사 결과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와 10일 해당 병원의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현재 신생아실을 이용하던 유아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유아의 경우 무증상 양성 결과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산모 중에 이동이 어려운 산모 5명의 퇴원 후에 전체 소독과 시설정비를 실시한 후 잠복기를 감안해 일주일 정도 임시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A산부인과가 다시 한 번 시설정비와 직원 교육을 통해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는 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로타바이러스는 분변-구강경로로 전파되며, 접촉 감염 및 호흡기 감염도 가능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24시간~72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며 감염 시 설사, 발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군산=문정곤 기자

도내 7개 시군 '건조주의보' 발령

전주시강청, 전주 · 김제 등에… 화재 예방 주의

13일 전주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전주와 김제, 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 등 도내 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3일 장수와 고창에서 임야를 소실시키는 불이 발생했다. /김민근 기자

고창에서 밭두렁 태우다 야산 화재 발생

12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야산에서 불이나 임야 0.2ha를 태우고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 등은 헬기 2대와 진화대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산림 당국은 마을에 사는 이모(71,여)할머니가 밭두렁을 소각하다가 불이 산으로 옮아붙은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장수 비행기재 화재 발생 임야 4ha 소실

전북 장수군 장수읍과 산서면을 잇는 국도변에 위치한 비행기재에서 불이나 임야 4ha가 소실됐다.

삼림 당국은 헬기 9대와 1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실시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현재 큰 불길이 잡힌 상태"라며 "산불진화대와 군청 직원 등이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논 · 밭두렁 소각이나 등산객 실화 등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